

地選 판세 변화...서울-PK “야당 당선돼야” 폭증

李대통령 지지율 61%로 급락 서울-TK-PK서 지지세 약화 흐름 ‘공소취소특검’ 반대 44% 찬성 27% 서울시장여야당선기대치동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영남지역에서 야당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이는 몇주전까지 고공행진을 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세가 폭락한 것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등에 따른 역풍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6.3 지방선거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당선’과 ‘야당 당선’ 동률로 나오고, 부울경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 당선’이 ‘야당 당선’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방선거를 앞

두고 민심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1%로 나왔다.

최근 3주 새 6%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지지율이 2주 전 63%에서 58%로 5%포인트 급락했다.

대구경북은 56%에서 46%로 10%포인트 빠졌고, 부산울산경남도 56%에서 53%로 낮아졌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높아진 28%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280명, 자유 응답)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10%),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이

상 7%), ‘외교’(6%),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특검에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권한 부여’가 27%, ‘권한 부여 안돼’가 4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견 유보 28%.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여당이 높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은 “양론 격차는 작던 10월 3%포인트에서 점증해 올해 3~4월 평균 17%포인트였으나, 이번에는

11%포인트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과 영남의 경우 야당 당선 기대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야당 당선’과 ‘야당 당선’이 40% 동률이었다. 2주 전에는 ‘야당 당선’ 43%, ‘야당 당선’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야당 당선이 10%포인트 늘었다.

부산울산경남은 ‘야당 당선’ 37%, ‘야당 당선’ 43%로 2주 전에는 ‘야당 당선’ 39%, ‘야당 당선’ 36%에 비해 크게 뒤졌다. 물론 대구경북도 ‘야당 당선’ 22%, ‘야당 당선’ 46%로 야당 당선이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수봉 도의원 완주 한별고 교육환경 개선 점검

대나무숲 민원 해결 방안 모색 보도블록 주차장 노후 확인



윤수봉 도의원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러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지난 15일 완주군에 위치한 한별고등학교를 방문, 대나무숲 민원 해결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현지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내의 대나무숲을 점검하며 해충 발생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확인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보도블록과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주차장 등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윤수봉 의원은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정비와 시설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전북도, 재난안전 실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나서

도·시군 실무자 130명 대상 교육 사례·경험 중심 실효성 제고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전북도가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15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군·유관기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재난안전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추진하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실무 능력 향상과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재난 현장에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난과 공제보상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위험물 안전관리론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등으로,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다뤘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대학, 재난안전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재난 대응 사례와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종사자의 직무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사진=전북도>

“재난은 초기 대응 역량과 현장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대

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철 기자

이원택 “전북체육 판 키운다” 인프라 확대 공약

엘리트·생활체육 지원 특화 육성 체육회 예산 증액·야구 11구단 유치



이원택 후보

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프로야구 열기를 반영한 11구단 유치와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한 국기원 유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 15일 “도내 체육인들과 함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을 늘려 전북체육의 판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전북체육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체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종목별 체육 인프라 구축 △야구 등 특화 종목 집중 육성 △체육 예산 증액 △체육회 자율 운영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원택 후보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인프라 구축과 시설 확충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도체육회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체육계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

이 후보는 “전주와 군산의 야구 등 지역 특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구장 30여 개 규모에 달하는 180호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전국 단위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북을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수영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첨단산업 ‘반쪽 성장’...핵심축 공공기관 없어

새만금 에너지 연구기반 빠른 확장 핵심 공공기관 부재로 산업화 한계 “2차 이전, 산업생태계 완성 시험대”

전북도의 현대자동차 9조 원 투자 등 미래첨단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의 부재로 산업 생태계 완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조성 중이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안전연구원·재료연구원 등 에너지 분야 연구 기관이 집중해 있다. 그러나 에

너지 R&D 과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도권에 위치해 현장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도 주관 기관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평가원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에너지 R&D 기획부터 실증·사업화까지 한 지역에서 완결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한 에너지 특화기업 추가 유치도 기대된다.

정읍에는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독성과 학연구소, 방사선 기업지원 인증기관 등이 위치해 방사선 원천기술 연구와 비

임상 시험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반면 임상과 치료 단계를 담당할 ‘한국원자력 의학원’이 없어 연구에서 산업화로 이어지는 고리가 단절돼 있다.

현재 의학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 본원만 운영 중으로, 서남권에는 방사선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하다. 원자력의학원이 유치되면 연구·비임상·임상·치료로 이어지는 방사선 전주기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2030년 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의약품 시장 선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서남권의 방사선 비상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공공 의료 기능도 동시에 확보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현재 전북본원이 운영 중이며, 바이오·이차전지·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원과 협력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본원이 서울에 있어 인력·장비의 통합 운용이 어렵고, 협력 사업도 분산 운영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북은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개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결한 지역으로, KIST 본원 유치 시 구심점 역할이 가능하다.

본원이 전북으로 이전해 본원과 통합되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광역 연구 개발특구 편입을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와 연구소기업 설립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부지 확장에 한계가 있는 서울

홍릉보다 전북이 KIST의 성장 여건 개선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고등과학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전(KAIST)·대구(DGIST)·광주(GIST)·울산(UNIST)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기초과학 연구 기관을 보유했지만, 전북은 수학적 모델링과 계산과학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 R&D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넘어선 전북의 혁신 인프라에서 기초과학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구조적 약점으로 꼽힌다.

고등과학원이 전북에 들어서면 피지컬AI·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핵심 산업과 접목돼 원천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단순 생산·실증 기지를 넘어 국가적 지식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KIST와 함께 제2의 홍릉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장의 연구·실증 인프라는 갖춰지고 있지만, 이를 기획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완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배치가 아니라 전북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꼬리 물기



끼어 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전북타임스연중 캠페인

전주 남부시장,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

‘케이-관광마켓’ 2기 선정 가격 정찰제카드 결제 등 4대 서비스 혁신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케이-관광마켓’ 2기로 서울 망원시장, 부산 해운대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주 남부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 11개 시장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 발대식을 열어 전통시장 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 (서울) 망원시장, 경동시장, (부산)

해운대시장, (대구) 서문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경기) 수원남문시장, (강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충북) 단양구경시장, (전북) 전주남부시장, (경북) 안동구시장연합, (제주) 동문재래시장

‘케이-관광마켓’ 2기 11개 시장 상인회, 4대 서비스 혁신 약속하는 공동선언문 서명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년부터 ‘케이-관광마켓’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기 발대식에서는 ‘케이-관광마켓’ 2기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국내 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적되어 온 바가지요금과 일부 불친절한 응대 문화를 근절하고 상인 주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친절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확산할 것을 다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케이-관광마켓’ 2기 11개 시장 상인회, 청년 상인, ‘스마일 캠페인 홍보대사’, 국제 홍보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관광마켓 스마일 추진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11개 시장 상인회장들이 가격 정찰제와 카드결제, 청결·위생, 친절 등 4대 서비스 혁신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장보고, 한강에서 피크닉’,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연계 상품 마련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연 행사 ‘시장에서 장보고, 한강에서 피크닉’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직접 망원시장에서 장을 본 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타고 망원한강공원으로 이동해 소풍을 즐기면 된다. 시연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하는 다회용기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소풍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스마일 캠페인’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전통시장이 ‘케이-컬처’와 ‘케이-푸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 모집

만 18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

주인공 ‘소리천사’ 자원봉사자 모집이 오는 6월 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에는 총 6개 분야 △기획 △무대 △행사 △홍보·마케팅 △행정 △기록 활동자 등이 모집될 예정이다.

‘소리천사’ 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관리 △운영본부 및 종합안내소 운영 △차량 진·출입 관리 △프레스센터 및 기자회견 운영 △티켓 대표소 운영 △SNS 콘텐츠 제작 △사진 및 영상 기록 등 소리축제현장 다양한 분야 곳곳을 누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소리천사 홈페이지 온라인(sorifestival.com/soriangel)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해 소리천사 자원봉사자에

선정되면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등 공식 일정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기존 소리천사 참여 경험자에게는 면접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6월 10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면접심사를 거쳐 6월 24일 발표되고 선발된 소리천사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축제 기간 소리천사에게는 유니폼과 ID카드, 가방, 모자 등 활동용품이 제공되며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시간 인정과 함께 식사 및 간식이 지원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우수 소리천사’ 시상도 진행되며 특히 전북 이외 거주 소리천사들에게는 숙소가 제공된다.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16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영태 기자

이재영 전북경찰청장 학생 특별치안활동 “총력 대응”

도내 전 지역 통학시간대 경찰관 배치·하룻길 안전 강화

전북경찰청 이재영 청장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사·모방범죄 차단과 도민 체감안전 위한 ‘학생 맞춤형 특별치안활동’을 펼치며 총력 대응한다.

이에 이 청장은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22일까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



이재영 경찰청장

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경찰관 거점 배치를 강화한다.

교 전 담 경찰관(SPO)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합동으로 학생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경찰은 SNS 소통창구인 ‘순찰신문고’ 등을 통해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찰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순찰신문고는 통학로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학생 참여 장구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은 순찰신문고를 통해 △순찰활동이 필요한 지역 △조명이 필요한 지역 △CCCTV·비상벨이 필요한 지역 △수풀제거·폐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인포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에는 자율방범대 및 학생보호 인력 등 민간의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불안 지역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범죄예방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아울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 아중지구대(대장 엄두석)는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심야 합동순찰 및 맞춤형 방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공동체 치안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편의점 점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올바른 112 신고 요령과 방범 비상벨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명소 9곳 예식 공간 개방

16일 시청 앞 노송광장서 ‘웨딩 in 전주’ 제2호 부부 탄생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지난 16일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웨딩 in 전주’ 제2호 커플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예식은 전주의 상징적인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웨딩 in 전주’의 두 번째 결실이다.

제2호 예식의 주인공이 된 예비부부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노송광장의 푸른 자연을 배경으로 가족과 친지 등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을 진행했다.

특히 시는 현재 ‘웨딩 in 전주’ 사업을 통해 전라강영과 노송광장, 덕진공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시내 주요 명소 9곳을 공공예식 공간으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부부에게는 의자·테

이블과 꽃장식, 음향 등 예식 연출 비용 100만원이 기본 지원된다.

또 별도 요건 충족 시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200만원까지 예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양육지원’ 확대

23일부터 ‘육아심포’ 운영

‘육아심포’ 사업은 센터 이용이 어려운 지역 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부모·자녀 체험활동 및 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3일부터 10월까지 전주시역 10개 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 어린이집은 △포레나라어린이집 △에다음사랑어린이집 △아이월드 어린이집(이상 덕진구 동부권) △에코누리 어린이집(덕진구 서부권) △조마리어린이집 △세븐밸리어린이집 △휴먼시 아숲어린이집(이상 완산구 서부권) △북지어린이집 △교동원어린이집(이상 완산구 동부권) △베이비스쿨24시어린이집(중부권) 등이다.

따라서 각 거점기관에서는 부모교육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 상담, 오감놀이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모와 영유아가 보다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이트 2기’ 운영

청소년 주도 활동 통해 기획력·리더십·자신감 함양 기대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11월까지 ‘2026 자기주도 동아리 나이트 2기’를 운영한다.

‘나이트 2기’ 운영은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자기주도형 동아리로서 청소년들의 기획력·리더십·자신감 함양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동아리는 지난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2기를 맞이했다.

지난 1기 프로그램은 플로깅·농촌체험·나눔·연탄봉사 등 계절별 테마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2기는 지난 1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테마 선정부터 활동 계획·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꿈드림 상담원은 청소년

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하며, 스포츠·창작·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계획·실행·평가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생활속 구강건강강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이 지역민 올바른 구강건강 증진과 치료에 대한 이해 돕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건강강좌는 구강악안면외과 신경수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사랑이 뽀기 전 알아야 할 Q&A 모음’을 주제로 진행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의료진과 참석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치과진료처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강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격월로 정기적인 건강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산단 근로자 ‘밀착형 세정’ 지원

광주지방국세청과 맞손

새만금개발청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아 광주지방국세청과 손잡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찾아 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세정업무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최초로 협업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세무기관 방문이 어려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출·퇴근 시 운영되는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에서 가계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장려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방법을 상세히 전달



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세정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 활동은 복지세정을 집행하는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산단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 맞춤형 밀착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AI 융합 개발 지원사업' 기업 모집

기술 고도화 및 시장 진입 확장... 내달 9일까지 신청

전북테크노파크와 익산시는 가상융합산업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 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가상융합산업의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홀로그램, XR 등 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총 1억1천만원 규모로 4개 기업 이상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약 6개월간 AI 기술 융합 개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AI 산업과 가상융합산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상융합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특히 AI 기술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진입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 가능성과 산업 확산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상융합 기술 적용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서비스 확산 및 기업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기술이 접목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계기로 지역 AI 산업과 가상융



<사진=전북테크노파크>

합산업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기술 융합 기반의 산업 생태계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신시장 형성과 함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투자 유입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한국문화 체험의 장 마련

5월 가정의 달 지역민 사랑에 앞장서는 전북농협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지역다문화가족 100여명과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협력 사업이다.

관련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체험 및 화합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100

여명은 △염색체험 △한지뜨기 △비빔밥만들기 등을 통한 한국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특강과 가족사 진찰 등으로 지역·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다문화가족 안정적 농촌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재미난,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상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농협은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여성대학 등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과정'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중기중, 전북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이끈다"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AI 활용, 중기 생존 필수"

임승중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AI 활용 능력은 이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임승중 본부장은 지난 15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2026 중소기업 임직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실무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업무 자동화 등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전북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제도를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교육은 이해영 강사 특강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글 제미니AI 활용 방법 △NotebookLM 기반 사내 문서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넵킨AI를 통한 텍스트 정보 시각화 등이다.

특히 이날 이 강사의 현업 실무 중심 커리큘럼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으로



<사진=중기중 전북지역본부>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 농진청, 차단 '총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서 수집한 의심 시료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해 확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진단 실험도 가동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은 전기 예찰 기간(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 농가 신고로 총복 총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22헥타르(ha)에서 최초 발견됐다.

현재 충북농업기술원·충주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19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

예찰을 벌여 확산 차단에 나선다.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8개 도 농업기술원(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외)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영상)를 열고,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은 135개 농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농가 수는 83%, 면적은 6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과수화상병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까지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0년에도 사과, 배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과수화상병 감소 추세 유지를 위해 농업인·농작업자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농가는 손실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여름재배 파프리카 첫 수확 현장행정

여름재배 파프리카가 첫 수확의 결실을 맺는 시기,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국산품종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남원 운봉 재배현장을 찾았다.

전북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는 지난 15일 남원시 운봉읍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방문해 자체 육성 품종인 '무나 레드'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파프리카 여름재배 농가의 1그름 수확기에 맞춰 육성품종의 생육 특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생산현장의 의견을 연구와 기술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 운봉지역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파프리카 여름재배 주산지로, 현재 약 20ha 규모에서 25농가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데아 레드', '무나 레드' 등 국산품종은 약 4ha 규모로 재배되고 있어 유럽종 중심의 품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현장 관심이 높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신품종 '무나 레드'를 0.3ha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1그름 수확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과채류연구소 연구진과 기술보급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국산품종과 대비품종의 생육 특성을 비교하고, 초기 활착, 착과 상태, 병해충 발생 여부, 수확기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과채류연구소 성문호 소장은 "파프리카 국산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농가에서의 생육 안정성과 시장성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며 "우리로도 여름재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전북은행, 군산 방축도 찾아 봉사활동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공단 자매결연 어촌마을인 전북 군산시 방축도를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2011년부터 방축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전기안전 점검, 주민초청 행사, 봉사활동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공단과 전북은행 임직원 20명은 해안가로 밀려든 페어구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 공동운영 펜션' 관련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후원물품은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우정청>

전북우정청 집배원, 화재 속 어르신 생명지켜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장지훈 집배원은 불길을 발견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장지훈 집배원은 이어 119 소방대 도착 전까지 초기 진화에 적극 나서며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다.

전북지방우정청 구본준 청장은 우편물 배달 중 신속한 대처로 화재 현장에서 어르신 생명을 지킨 군산대우체국 소속 장지훈 집배원을 찾아 감사문을 전달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장 집배원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교육 시스템과 직원들의 선행에 따른 사망감 결함 결과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전국을 촘촘히 있는 우체국 및 집배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및 재난 현장 초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번 장 집배원의 인명 구조 역시 매뉴얼에 입각한 일선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신협재단, 사회공헌 협력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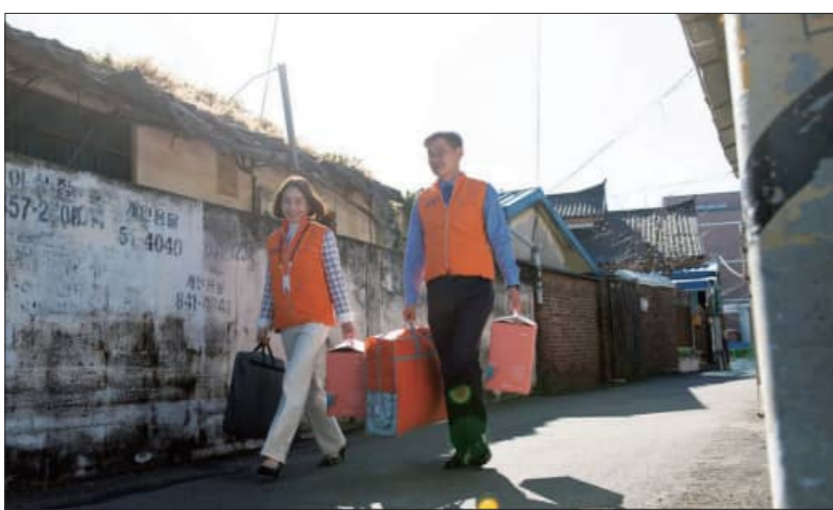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2026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회공헌 활동 지속적 발전 위한 총 5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어부바'는 지역 신협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순수모아봉사단'이 지역 사회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기획·실행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35개 단위 신협과 15개 시·도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한다.

신협재단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회공헌 모델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



<사진=신협사회공헌재단>

는 현안 해결 중심의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환자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농촌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마을

택시 운영 △가정체육아동 대상 진로·금융 교육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이남호 측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

선대위 대변인 200만 원 제공 혐의 결과 따라 선거판 요동 불가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막바지로 치닫는 전북교육감 선거판이 대형 약재를 만났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이 후보의 선

거사무소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후보의 대변인 A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2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존 비속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는 향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 이 후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임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대변인 개인의 행위를 넘어 후보 본인의 인지 여부와 수뇌부의 지시·묵인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혹의 당사자인 대변인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 캠프는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조만간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공식 발언을 책임지는 대변인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은 캠프 측의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관련자의 구체적 혐의와 추가 연루자 여부는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한 만큼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김제새만금 지평선 마라톤대회' 접수

20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종목(하프, 10km, 5km)으로 진행되며 종목별로 하프코스과 5km 1,500명, 10km 2,000명 총 5,000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참가비는 하프, 10km 45,000원, 5km 25,000원이다.

참가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제25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김제스포츠클럽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윤봉기 기자

'익산 트레일레이스' 전국 러너 300명 모집

10월 개최... 용화산 미륵산 일원서 펼쳐져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제2회 익산 트레일레이스' 참가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익산 트레일레이스'는 지난해 시민이 직접 지역 콘텐츠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문화도시 삼산오 사업을 통해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문화도시 삼산오에 제안된 100개 아이디어 가운데 1등에 선정되며 지역 대표 스포츠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실제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대회에

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용화산과 미륵산 일대 약 20km 코스를 달렸다.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지나가는 구간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익산만의 차별화된 트레일러닝 코스로 주목받았다.

이번 제2회 대회는 다배움협동조합과 익산철인클럽 주관으로 오는 10월 17일 오전 8시 용화산과 미륵산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 코스는 서동공원 내 마한박물관 광장에서 출발해 용화산과 미륵산, 미륵사지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총 20km 구간으로 구성된다.

제한시간은 5시간이며,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완주 메달이 제공되고

남녀 각각 1~3위까지 시상도 진행된다.

비교적 완만한 산세와 산을 연결하는 다양한 동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트레일러닝 입문자부터 경험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네이버폼(naver.me/x6JUr0U)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익산철인클럽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근 러닝 문화 확산과 함께 트레일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익산 트레일레이스가 시민과 참가자,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천호성 '전북형 유보통합' 4대 지원 정책 발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청 중회의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안착을 위한 4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천 후보는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단가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외국인이나 재학 기관의 구분 없이 외국인 유아에게도 동일한 보육료를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처우와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청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수당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노후 어린이집을 위한 환경개선 특별지원금을 편성하고, 교재·교구비 역시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천 후보는 "전북형 유보통합의 선도적 안착을 위해 교육청 내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보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천호성 예비후보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도파크골프대회 우승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가 지난 13일 완주군에서 열린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배 파크골프 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통령기 전국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해 완주군 비봉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경기에는 단체전 남녀 각각 28개 팀에서 총 112명이 출전해 치열하게 실력을 겨뤘다.

정읍시지회 소속 참가자들은 전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완벽한 조직력을 선보였다.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운영 능력을 발휘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스스로 입증했고 마침내 여자부 단체전 1위를 확정 지었다.

이호준 지회장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다음



<사진=정읍시>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시지회는 이번 도내 대회 우승과 전국 대회 진출 자격 획득을 바탕으로

지역 내 어르신 생활 체육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한층 단단하게 다졌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시, 28일 어린이 창극 '별주부와 시간의 샘' 공연

5월 가정의달 시리즈 3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창극 '별주부와 시간의 샘'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통 창극의 서사 구조와 라이브 음악의 생동감을 결합해 아이들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생동감 있는 예술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표·총감독 국은예를 중심으로 아쟁, 베이스, 신디, 드럼 등 다양한 창작진과 연주자가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완성해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배부는 19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석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 교원단체, 차기 교육감에 '직접 민원 차단' 요구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는 지난 13일 원탁토론을 열고 차기 전북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할 '전북교육 7대 과제' 정책 제안서를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 △교육지원청 전담 대응 △무고고성 아동학대 신고 법적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 업무 경감과 인사 제도 개편을 위한 △공문 총량제 및 정책 일몰제 도입 △교육과정 연구 시간 보장 등이 논의됐으며, 지역 전략 산업 연계 특성화고 육성과 중등 교원 정원 확보 등도 필수 과제로 포함됐다.

단체들은 제안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해 정책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 참가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창업동아리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3일 교내 ICC 및업센터에서 RISE사업단과 창업지원단 공동으로 '2026 창업동아리 및 G-Starter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개최하고, 총 15개 팀 35명의 참여한 '2차년도 창업 지원 활동'의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RISE사업단장 인사말 △사업 운영 방침 및 집행 안내 △창업동아리 협약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창업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RISE사업단과 각 창업동아리 팀장 간 공식 협약이 체결됐다.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구본용 단장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전적인 창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립군산대학교는 실전형 창업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근석 기자



군산시,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군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현장 저항 최소화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협 및 해경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와 같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달 4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내달 4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변호판 영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가동하며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모아 밀린 세금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안내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무단용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즉시 압류 조치한다.

특히 꾸준히 늘어나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 차량 단속 기동반도 가동한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함께하는 청렴문화체험교육 실시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수 일원에서 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견학 형식을 넘어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돼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청렴 행운카드'를 활용한 청렴 퀴즈, 청렴 2행시, 공정한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동도와 예술랜드에서는 팀별 청렴 미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공정 팀워크 미션', '청렴 4행시 만들기', '청렴 한마디 사진 촬영' 등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순신광장에서는 청렴 결의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함께 다짐했다.

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은 "청렴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중심지' 우뚝

기업 50개 유치... 두바이 법인 설립 및 수출 등 글로벌 성과

익산시가 홀로그램 전문 기업 유치 '50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홀로그램 산업의 심장부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시는 지난 15일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인 ㈜페이엑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0번째 파트너가 된 ㈜페이엑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3D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유망 기업이다. 교육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은 이제 유치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협약을 맺은 5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이미 익산으로 본사나 연구소를 이전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도 눈부시다. 레인보우핀토스는 올해 두바이



페이엑스 콘텐츠

<사진=익산시>

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와이아이피와 더가람은 홀로그램 제품을 두바이에 수출하는 등 익산에서 키운 홀로그램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시는 2019년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단순히 기업을 불러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것이 이번 50호 기업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50번째 투자협약은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의 불모지에서 증명하는 기록"이라며 "기업들이 익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 화폐 '깡' 원천 차단

불법 환전·부정 수취 단속... 내달 7일까지

정읍시가 지역상품권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부정 수취를 막기 위해 내달 7일까지 4주간 관내 가맹점 51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위 '깡' 같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려는 목적이 담겼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먼저 걸러낸 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피려는 위반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챙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비싸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사행 산업이나 유흥업소 같은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현금 결제자와 차별하는 행

위,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돕는 지역 경제의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내실 강화

민·관 협력 확대... 122개소 대상 점검

군산시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정자교 스카이워크와 지난 15일 조촌동 아르티엔 건설현장에서 민·관 합동점검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대학교와 함께 부단체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민 부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안전사고 예방은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 양성사업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6일과 7일에는 위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20

일과 21일에는 은파 물빛다리와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를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지진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61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관·협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총 30개 시설 분야 1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5일 기준 8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전체 대상의 69%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공공기관 이전·국비 확보' 전면전

정현을 시장, 국회 찾아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쳤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등 익산의 미래를 바꿀 전략 사업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공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날 말 부처 예산안 편성 마감과 내달 정부안 편성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정 시장은 먼저 한병도 의원실(익산)과 이춘석 의원실(익산 갑)을 방문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익산시가 가진 우수한 정주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하고 정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건의도 밀도 있게 진행됐다. 한병도 의원실에는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국립 한의약 임상연구 교육센터 건립 △한국재난안전산업 진흥원 건립 등 익산의 체질을 바꿀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다.

이춘석 의원실과는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 여건 확충을 위한 행보도 돋보였다. 정 시장은 강경숙 의원실(조국혁신당)을 방문해 이리공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익산의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며, 공모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늘 건의한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예산 사업, 교육 인 등 익산의 미래 자산"이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땀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여행자 원데이클래스' 운영

로컬 경험 제공... 23일 시작

군산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군산항1981에서 '여행자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자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편의와 로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클래스는 △군산항1981 테라리움 만들기 △군산여행 키링 만들기 △여행의 감정을 담은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군산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며 여행의 여운을 깊게 남길 수 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협



<사진=군산시>

력으로 준비한 이번 클래스가 여행자들에게 군산을 기억하는 특별한 체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일정 확인 및 참여신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군산항1981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38명에 1인당 35만원 지급

정읍시는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38명을 선정해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해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이용하

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용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달부터 12월까지 관내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기관 10곳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이끌어 사회활동과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외국인 고용 우수 기업 돕는다"

26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E-74R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고용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익산 소재 기업이며, 4개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문화교류 체험·행사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근로자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

를 준비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익산시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iseu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고, 기업 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통해 총 102명의 비자 전환을 지원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군산시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산시와 대야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현지 선발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농촌 인력 수요 증가와 농가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베트남 근로자를 지난해 19명에서 26명으로 확대했으며, 군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지역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본격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용 농가는 1일 기준 1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40명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대야농협이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군산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투기적 소유 방지 및 농지질서 확립... 연말까지 집중 점검

김제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8개월간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농지의 불법 임대차, 휴경, 무단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건전한 농지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본격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 전담조직과 지역여건

에 밝은 조사원을 포함한 19개 읍·면·동별 조사반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약 118,000필지(20,158.47ha)로 기본조사(5~7월) 기간에는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업경영 실태를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분석 등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며, 심층조사(8~12월)기간에는 중점 대상 9대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종 발급·관외거주자 소유·공유취득자 소유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

의무 통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농지 전수조사는 기존의 단순 점검을 넘어 농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투기성 농지 소유를 예방하고, 실제 농업생산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전한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부안군, 노거수·보호수 병해충 방제

수목 피해 최소화

부안군은 기온 상승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수목 병해충으로부터 관내 노거수·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는 관내 노거수 및 보호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목의 생육 저하와 고사를 유발하는 진딧물, 응애류 등 주요 병해충을 집중 방제한다.

특히 불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를 통해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노거수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산림자원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군은 병해충 발생 여부를 수시로 예찰하고 수목 상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거수와 보호수는 보전 가치가 큰 수목자원인 만큼 지속적인 병해충 관리와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부안군, 부안성모병원과 의료공백 메운다

의료인력 지원 협약 체결... 주민 건강권 보호 나서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성모병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정상화하고 1차 보건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중보건 의사 배정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어촌 보건지소 등의 진료 체계 유지에 비상한 절린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이번 사업은 관할 책임의료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투명해졌다.

다행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부안성모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분개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안성모병원은 오는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에 우수한 전문의를 출퇴근 보건지소에 파견해 남부안 권역지역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공중보건 의료의 감소로 인해 불

가피하게 진료가 잠정 중단되거나 순회 진료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제훈 부안성모병원장은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공중보건은 1차 진료의 최후 보루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의 급감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지역의료시스템의 붕괴 신호"라며 "농어촌 지역 병원 역시 간호사 및 의사 부족 상태가 심각하지만 공중보건의가 없는 관내 보건지소의 1차 의료 공백에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대학생·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題)

'대학생생활안정비' 신청자 모집

김제시는 관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5월 18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으로,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이며,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4년제 기준 최대 8학기(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yeon113@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달 26일 경 개별 문자로 선정 대상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은 "높은 물가와 주거비로 고충을 겪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근심을 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전년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자 △상세업종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지참해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강화

베트남·캄보디아 방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전북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기관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고창군이 오늘까지 베트남 난민성과 캄보디아 프놈펜·칸달 지역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 점검과 송출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무 국외 출장을 진행 중이다.

고창군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

로자 약 3000여명이 입국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400여명을 추가로 유치해 총 34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동남아 방문은 고창군 농업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지역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상황, 항공 이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수급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 내 다른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출장단은 베트남 난민성 내무국과 난하리 인민위원회, 해외 인력 베트남 현지

계절근로자 교육장 등을 방문한다.

이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올해부터 신규로 유치하게 될 칸달 지역 관계자들과의 상호 협력의도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인력 송출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직업 훈련 과정과 교육 인프라 점검, 농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창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간부공무원, 주요 사업장 방문

고창군이 지난 15일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국장을 비롯한 부시장, 읍·면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간부공무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군정 핵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간부공무원 간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고창군 공무원들은 드론통합지원센터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을 조성하는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사현장을 찾았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해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 축공사를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관광 분야 핵심사업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심원면 만들리 일원에서 체류형 관광자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숙박·레저·생태·세계유산 콘텐츠를 한데 묶어 고창 관광의 체류 기반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간부공무원들이 군정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간 연계성과 협업 필요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친환경 농축산 경영 교육 '호응'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관내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 융합미생물 활용 및 토양 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친환경 농축산 경영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생물을 활용해 최근 고출산 양돈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종 농가의 토양 관리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효과가 강조돼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토양을 되살리는 효이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 자재"라며 "앞으로도 축산 악취 저감과 농경지 비옥도 증진을 위해 고품질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군, 가족뮤지컬 'DMZoo' 공연

21일, 고창문화의전당서

고창문화의전당이 가족뮤지컬 '디엠즈 DMZoo' 공연을 오는 21일 저녁 7시30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 'DMZoo'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사업에서 선정된 창작동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로 DMZ의 필요성과 생태계 보호,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그린 작품이다.

7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금지돼 온 독특한 지역이자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가 되는 역설의 땅 DMZ의 비극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며 전세계에 이 지역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창작뮤지컬이다.

김연섭 고창군 문화공연팀장은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디엠즈는 작품 기반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멜로디드 뮤지컬로 가족들이 함께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해리면, 시각장애 어르신 자택 '사랑의 집 청소' 봉사

고창군 해리면 주민행복센터(면장 홍정목)가 지난 14일, 지역 단체(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의용소방대 등)와 함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 어르신 가정의 청소를 도왔다.

이번 봉사는 집안 곳곳에 쌓인 생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지 못해 위생과 안전 문제에 노출된 어르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해리면 주민행복센터의 주도로 진행됐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해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이세종·조성만열사 송고한 뜻 기려... 김제시 5·18 추모행사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추모공원에서 이세종·조성만열사 추모행사가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번 추모행사는 전라고 김제동문회와 해성고 김제동문회, 이세종조성만열사추모사업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두 열사의 송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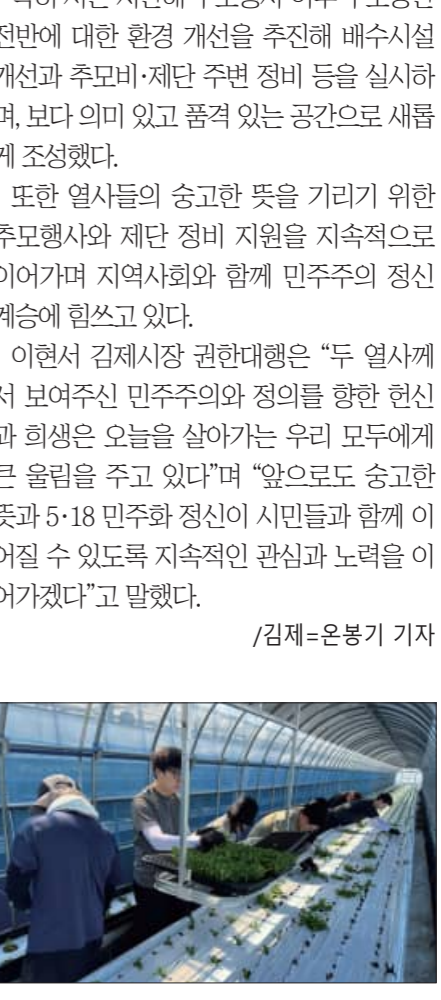
이세종 열사는 김제 연정동 출신으로 1980년 5월 계엄 확대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로 기록되고 있으며, 조성만 열사는 김제 용지면 출신으로 군사정권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실현에 헌신한 민주열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추모행사 이후 추모공간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추진해 배수시설 개선과 추모비·제단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해, 보다 의미 있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또한 열사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와 제단 정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민주주의 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두 열사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정의의 향방 헌신과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송고한 뜻과 5·18 민주화 정신이 시민들과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상하수도사업소, 영농철 상추 심기 일손돕기 추진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5일 하서면 소재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상추 심기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상추 심기를 지원하며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손돕기는 적기 파종을 통해 농작물 품질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작업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밭 돌리며 농가의 고충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작은 손길이 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유희태·국영석 완주군수 본선 레이스 돌입

6.3 지선 완주군수 후보 등록 유 "백년대계" vs 국 "혁신 전환" 완주-전주 통합 이슈 놓고 '격돌'



유희태 후보 국영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 무소속 국영석 후보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4일 완주군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유 후보는 등록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더 큰 완주의 도약과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민선 9기 완주군수 출마를 확정지었다"며 "지난 민선 8기의 압도적 성과를 바탕으로 완주의 백년대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 후보는 "완주는 지난 4년 동안 정체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부 세력의 거센 압력에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며 "현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책임감,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절실하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유 후보는 완주 대도약을 위한 민선 9기 5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에너지 지산지소와 햇빛연금마을 추진 △국내 최초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완주 AI 데이터센터 조성 △전북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국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 지역 소

멸 위기,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외부의 압력과 시련,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통합에 대한 애매한 태도에서 선거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독선과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후보에게 더 이상 완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경선의 상처를 보듬고 완주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뭉쳐주신 선대위와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증된 행정력과 강력한 비전, 책임감 있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완주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 후보는 "정년이 돌아오는 완주, 이사 오고 싶은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군민의 희망을 위해 전진하겠다"며 "혁신을 통한 완주 대전환을 위해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선배 귀농인' 귀농귀촌 멘토단 위촉

6명 멘토 영농기술정착 지원 특화작물·친환경농업 등 전문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최근 '2026년 귀농 귀촌 행복 멘토단 위촉식'을 열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쌓은 선배 귀농인 6명을 멘토로 위촉하며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섰다.

올해 위촉한 멘토단은 블루베리 등 특화 작물 재배부터 청년농 창업, 시설 채소, 유기 농업 경영, 식용꽃 재배 및 치유 체험,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꾸렸다. 이들은 현장에서 쌓은 생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멘토단은 예비 귀농 귀촌인과 초기 정착민을 대상으로 영농 기

술과 농촌 생활 전반에 관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이끄는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군은 멘토들의 전문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행복멘토단이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무인제조기 4대 도입 임대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승용제조기 사용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고령 농업인 등 농작업 약자의 작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인 제조기 4대를 신규 도입하고, 2026년 영농철부터 본격 임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에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방식으로 작동하는 무인제조기를 도입했다. 무인제조기는 경사지 등 위험 지형에서도 작업이 탑승 없이 운용이 가능하며, 기존 승용제조기 대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장비 도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약자의 노동 부담 경감에도 중점을 뒀다. 원격 조종 방식의 무인제조기는 기존 승용형 제조기에 비해 체력 소모가 적고, 작업 중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농작업 취약계층의 이용에 적합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도입한 4대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해 관내 농업인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본격화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가구당 최대 800만원 지원

순창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1가구로, 군비와 복권기금을 합쳐 1억 6,800여만 원을 확보했다. 가구당 최대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며, 순창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약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항목은 △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교체 △문턱 제

거 및 장판 보수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이며, 지붕 개량(슬레이트·강판 교체)이나 화장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3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가구 등 경제적 사정으로 집수리를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이후 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수리가 시급한 취약가구 21호를 최종 선정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조광희 순창군수 권한대행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완주,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 2(題)

순창군, 산불·병원 화재 대응 민·관·군 안전훈련

완주군, 폭우·지진 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순창군이 지난 15일 순창 대피 체계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순창군 공무원들을 비롯해 소방·경찰·7733부대 3세대·한국전력공사·KT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연합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민·관·군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도 입차 헬기와 정읍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진화차 '유니독' 등 총 64종의 장비가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대응 훈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순창군 공무원 진화대'의 현장 대응 활동과 정읍국유림관리소의 산불 진화체계까지 실제처럼 구현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산림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최근 고산면 화정 저수지 일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와 함께 '2026년 재해 대비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관내 농업용 저수지의 집중 호우 및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 조치와 상황 전파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피해 위험 지역 주민들의 대피 동선 확보와 이재민 발생 시 대

남원시, 춘향제 "일회용품 제로" 35톤 쓰레기 감축

다회용기 45만개 전면 도입 성과 흥부제-드론제전 확대 운영 계획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춘향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 음식 판매부스와 먹거리 공간 등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총 45만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크게 줄여 약 35톤의 쓰레기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제장의 음식은 다회용기에 제공됐으며, 방문객들은 식사후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다회용기 반납함에 분리배출했고 수거된 용기는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세척·살균

한 뒤 다시 현장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인과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친환경 축제 문화 정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다회용기 도입은 단순한 일회용품 감축을 넘어 이산화탄소 47톤과 미세먼지 99kg 감축 효과로 이어지며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더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깔끔하고 위생적이며 사용이 편리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는 이번 춘향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열릴 흥부제와 남원국제드론제전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지역 근현대사 디지털화 사업 선정

도비 1억원 확보 아카이브 구축 남원다움관 기록 12만건 활용

남원시는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이번 과제는 남원다움관이 소장한 12만 건의 지역 기록을 활용해 '남원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억가도(記憶架圖)'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아카이브에는 남원 읍·면·동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부터 과거 남원시 시절의 행정 기록, 춘향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기록까지 남원의 근현대사가 총망라된다. 특히 문서, 사진, 녹취록,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며, "남원다움관이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를 공감하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소방서, 갇힌 어르신 구조 뒤 문까지 수리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단순 구조활동들 넘어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으로 지역사회에 감동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침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집 안에 갇혀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내부에는 홀로 거주 중인 70대 어르신이 있었으며, 현관문 고장으로 외부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소방서 119구조대는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내부 요구조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뒤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현관문 구조상 강제 개방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불가피하게 현관문 일부를 손상시키며 개방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를 무사히 마친 뒤에도

구조대원들의 배려는 이어졌다.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조대원들은 자비로 수리 자재를 마련해 직접 현관문을 복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동한 구조대는 소방위 박종선 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들로, 평소 적극적인 자세와 솔선수범하는 현장활동으로 정평이 난 팀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직장훈련콘텐츠스에서 구조 관련 훈련 영상을 출품해 1위를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끊임없는 훈련과 연구로 구조 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선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군민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구조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

77km 구간 노면·시설 상태 확인

남원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생활권도로 30개 노선 등 총 41개 노선, 약 77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 시는 자전거도로 전반의 노면 상태

와 교통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배수시설·포드홀 상태 △교동안전 표지 및 난간 점검 △토사 및 적치물 유무 △자전거 보관대 파손 여부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가공사 계약 업체를 통해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자전거도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일상 실천 운동·식습관" 비만예방 건강교실 큰 호응

순창군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비만예방 건강관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실천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만예방 건강관리교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체성분 검사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를 바탕으로 비만예방 운동 프로그램, 올바른 식습관 개선 교육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근력 향상을 위해 '비만예방 태권도, 바레필라테스'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대상자들의 근력운동 등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식이요법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건강 측정 등을 통해 체중, 체지방률, 혈당 등의 변화를 확인하며 참여자들의 건강관리 동기 부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순창군보건의원(원장 온기곤)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학생들 대상 장애 예방·인식 개선 강좌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 관내 유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수어린이집 유아와 계북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통사고·낙상·생활안전 부주의 등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사례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전수칙을 전달했다.

특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행동요령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를 편견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며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노승무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덕치면,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 전달

임실군 덕치면은 지난 7일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방문하여 '임실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사업'은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임실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덕치면 회문리에서 노모를 모시며 집안 가사를 도맡아 하고 어머니와 산책도 같이 하는 박모 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이렇게 상품권까지 주니 감사하다"며 "상품권으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사이디도 구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야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이용마을협회, 요금 인하·체계 개선 합의

진안군과 진안군 이·미용협회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군은 최근 수차례에 걸친 이·미용협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노인 이·미용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최소화하는 최종 개선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결정은 학생 요금의 하향 조정이다. 군과 협회는 고유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덜고 미래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학생 카드 요금을 일반 요금 대비 5%~10% 내어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할인하여 책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이용업 요금 표시를 서비스 항목별로 요금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업소 특성상 카드, 면도, 드라이 등이 포함된 일괄 요금 체계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장벽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스킨 트리트먼트 드라이 트리트먼트 등으로 요금을 세분화하여 책정한다.

진안군은 이번 개선 방안이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유가·고물가 시대 속에서 지역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장수, 삶을 나누고 꿈을 키우다

무주군, 주민 강사 모집한다!

인문학강연자공개모집

무주군이 '이웃의 목소리, 무주에서 통하다_무주군민 인문학 강연(7.9~8.6. 매주 목요일 19:00, 무주상상반디술 다목적홀)' 무대에 설 강연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민, 또는 무주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자가 삶 속 경험과 직업, 재능, 지역, 세대 공감과 지역 공동체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칠 수 있으면 된다. 단, 정치나 종교, 상업적 목적의 강연은 제외한다.

신청 마감은 내달 16일 까지로, 인문학 강연 신청서 및 강연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 사무실(3층)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incs91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훈 무주군청 태권문 화과장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가 곧 지역의 인문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군민이 이야기하고 군민이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라며 이어 "무주군민 인문학 강연이 무주만의 특별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군민 강사 확보와 강연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꿈더하기' 사업 본격 시동

예체능 인재 발굴·교육

장수군꿈뿌리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2일 '2026년 개인별 맞춤형 특화사업 꿈더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꿈 더하기' 사업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관내 청소년을 발굴해 전문 강사와의 1:1 맞춤형 강습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사업이다.

'꿈 더하기' 사업은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7명의

청소년이 신규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3명이 최종 선발됐다. 여기에 기존 1~2년 차 연속 지원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학생이 올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됐다.

선발된 학생들은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영상 미디어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1년간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 작약·꽃양귀비 만개

주말마다 7~8천명 방문기록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472번지 일원)일원이 5월을 맞아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물들며 전국적인 붐꽃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5월 봄의 절정을 알리는 작약과 꽃양귀비가 화려하게 피어나면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원 작약밭 일대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사계절 경관 꽃이 조성된 옥정호 출렁다리과 붕어섬 생태공원은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14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가운데, 주말마다 평균 7~8천명이 찾는 등 역대

급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6,000㎡ 규모에 2만4천본의 작약이, 운종리 작약밭에는 7,200㎡규모에 3만본의 작약이 만개해 압도적인 꽃의 향연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새롭게 조성한 10,000㎡ 규모의 꽃양귀비 단지도 개화를 앞두고 있어, 붉게 피어난 작약과 꽃양귀비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꽃물결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군은 작약꽃이 피어있는 6월 중순까지 관공꽃이 대거 물결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및 교통·주차 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방문객 불편 최소화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암 예방·검진 인식 높인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대상 '찾아가는 암 이야기' 교육 진행

무주군은 지난 15일 무주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암 관리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 이야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암 예방 인식을 높이고 국가암검진 수검을 독려한다는 취지에 진행된 것으로, 흥은선 강사를 초빙해 △국가암검진 관련 정보, △QR 검사를 활용한 개인별 휴먼컬러 진단 및 컬러에너지 이

해, △성격 유형별 관점 차이 분석과 조직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소통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휴먼컬러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체험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오늘 교육이 어르신들의 암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검률과 암 예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관 사업 발굴과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고향 임실 방문

임실N치즈 브랜드 홍보 기부제 활성화 협력 논의

임실 출신인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고향인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손 사장은 심 민 군수와 환담을 갖고, 임실N치즈 브랜드 홍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실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오수외견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현황을 청취하며 변화된 고향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저지종 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등 유제품을 시식한 뒤 프리미엄 유제품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임실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고향발전에 직접 힘을 보탬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임실 출신인 손주석(孫周錫) 사장은 1960년생으로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에너지·환경 분야와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서 풍부한 경



임실 출신인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4일 고향인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임실군>

험을 쌓아온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 사장은 과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과 기관 운영에 깊이를 쌓았다.

또한,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 등을 맡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조직 운영과 위기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 3월 취임한 손 사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강

화와 재무 건전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손 사장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임실 이 관광과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며 "임실N치즈와 고향사랑기부제가 널리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읍지사협, 1인 가구 교류 프로그램 운영

'1촌이랑 장수 한 바퀴' 사업 1인 가구 정서적 고립 해소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점옥)는 지난 14일 밤안면 봉화산 일원에서 '1촌이랑 장수 한 바퀴' 사업을 추진했다.

장수읍지사협은 지난 4월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와 '1촌 땃기' 결연을 진행했으며, 이후 자연스러운 교류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1촌이랑 장수 한 바퀴' 사업은 기존 2인 중심의 결연 활동 범위를 전체 참여자로 확대해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과 결연 대상자 등 총 24명이 참여했으며, 장수군 7개 읍·면의 주요 시설과 공원을 차례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정으로 밤안면 봉화산 나들이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함께 산책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안부 확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완료

총 347점 도근점 설치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임실군이 정확한 지적측량과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을 위해 지적기준점(도근점) 신규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올해 지적측량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과 기준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도근점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347점의 도근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토지 경계 측량과 각종

공간정보 구축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과 토지 경계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도근점은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하여 현장조사와 성과 검증을 거쳐 추진됐으며, 기준점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은 신규 설치된 도근점 성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련

측량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토지행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 성수면, 자살예방교육·자연보호활동 실시

임실군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2분기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자살예방교육 및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2년간의 협의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여명은 최근 관내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극단적인 자살행위로 삶을 마감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자 임실군 정신건강센터 김인

자 선생님을 초청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비가 그친 오후에는 특화사업 "왕의숲 성수산 팥밭기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성수산 및 둔남천 일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으며, 회원 모두가 숲속 산책길을 걸으며 내고장 왕의 숲 성수산을 온몸으로 느끼는 등 명산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동행기업 8개사 선정

시공부터 운영관리·행정지원까지

진안군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책임질 'J-ReSCO 컨소시엄 동행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유우경에너지, 대성전력(주), 유한회사 내온, ㈜에담엔지니어링, ㈜승화기술, ㈜현대에너지, ㈜에스에너지, 안산신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 8개사로, 지난 13일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지역상생 의지를 검증받았다.

J-ReSCO(진안군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 설계, 감리는 물론 발전소 운영관리

(O&M)와 행정지원까지 책임지는 진안형 재생에너지 파트너를 의미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진안군, 마을과 함께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도내 기업 참여에도 가점을 부여했고, 핵심공정 재하도급은 진안군 소재 기업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화했다.군은 1차로 15개 마을 내외를 선정해 매칭하고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는 "검증된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 인화동 '동신요양원',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동신요양원'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캠페인이다.

참여 업소에는 나눔을 인증하는 현판이 전달되며,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동신요양원은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후원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김유성 동신요양원 원장은 "평소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역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느껴왔다"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착한가게 가입을 결정했고,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화산농협 농가주부모임, 어르신 염색봉사

완주군 화산농협은 지난 14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 염색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가주부모임(회장 양순희) 회원 26명은 화산농협과 함께 화산면 각 회관(대표 3곳)을 지정하여 약 30명의 어르신들의 염색을 진행했다. 화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지역의 이웃을 돕고자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염색봉사는 농가주부모임이 창단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양순희 회장은 "혼자 염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 봉사활동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남은 올 한해도 화산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산농협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재 조합장은 "화산농협 농가주부모임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산농협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시니어클럽-한국자산관리공사 나눔 실천

기부금 후원으로 파배기 나눔

김제시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김제시니어클럽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및 파배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의 기부금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김제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파배기카페'와 연계해 추진됐다.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과 노인 일자리의 의미를 공유하는 차담을

시작으로 기부금 전달식, 파배기 나눔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직원들이 직접 조리 과정에 참여해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체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경희 김제시니어클럽 관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의 가치를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니어클럽이 지난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 및 파배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남원 죽향동행정복지센터,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죽향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거동이 어려움을 겪는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자는 방문상담(1일 1가구 1대)을 통한 생활실태 확인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보행보조기를 전달받은 정○순 어르신은 "걸을 때마다 넘어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세심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지역 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시,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군산시 복지정책과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저장강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군산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장년 단독가구로, 집 안에 쌓인 다량의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노후되어 본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이웃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는 해당 가구를 위기가구로 선정하고 수차례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설득한 끝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환경개선 작업에는 민간 인력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13명이 투입됐다. 군산시청 공무원직 노동조합원 7명과 청소 전문업체 ㈜무궁자대 인력 6명이 참여해 이틀 동안 집 안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살균·소독 및 방역 작업까지 완료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완주 화산면, 이웃이 선물한 '다문화 부부 결혼식'

주민들 장소·웨딩촬영 등 도와

완주군 화산면 화산교회에서 최근 지역사회의 따뜻한 재능기부와 후원으로 마련한 다문화 가족 부부의 특별한 결혼식이 열려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으로 예식을 미뤘었던 이들 부부는 어느덧 7살이 된 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혼인 예식에는 신랑·신부 가족과 후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예배와 기념 촬영, 축하 행사 등이 이어지며 시종일관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결혼식은 지역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피로연 음식 준비와 하객 안내는 화산면 이장단이 도맡는 등 예식 전 반을 이웃들의 정성 어린 나눔으로 채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 메타과학수학학원·최상학원, 장학금 전달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박정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장학금은 메타과학수학학원(원장 유영태)과 최상학원(원장 이민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각 학원에서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후원해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5명에게 전달됐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각각 50

만원씩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완주군, 한일장신대 학생들과 건강 캠페인 실시

완주군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주민 이용 시설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이고 센터 프로그램을 알리는 대규모 건강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했으며, 사업 담당자와 한일장신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

해 주민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센터는 캠페인 현장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홍보를 시작으로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생활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또 올바른 손 위생과 결핵 예방·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교육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우리 함께 시작 해요!!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하기



청력 보호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인 신체운동하기

〈一事一言〉



고발과 네 탓 공방뿐인 전북 정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도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 정치가 유례없는 혼돈과 진흙탕 싸움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성지'라 자부하던 전북의 자부심은 검찰 고발과 비겁한 책임 회피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근 전북타임스 1면을 장식한 두 가지 소식은 작금의 전북 정치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한쪽에서는 현직 도의원이 경선 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경선 과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불성실한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 정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슬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전북 민주당 경선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추잡하게 흘러왔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의원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는, 그동안 도민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돌던 '줄 세우기'와 '부정 경선' 의혹이 실체가 있는 괴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북 정치를 사유화하려는 세력들이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우습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이며, 도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심 세력

들은 여전히 '남 탓'에만 골몰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 측이 이원택 후보를 향해 "중앙당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고 직격탄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지역 정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안호영 의원의 단식 사태, 그리고 이번 선관위 고발 건에 이르러까지 모든 혼란에 대해 "중앙당의 결정"이라며 선을 긋는 태도는 비겁함을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도자라면 마땅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앙 정치의 논리에 휘둘러 지역의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작 책임질 순간이 오자 꼬리를 자르는 모습에서 도민들은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중앙당의 시스템을 핑계 삼아 지역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침묵하면 할수록, 도민들은 민주당이 전북을 오직 '중앙 권력을 위한 거수기'로만 여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김관영이나 이원택이나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북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중앙 정치의 오만함과, 그 오만함 뒤에 숨어 제 이익만 챙기려는 지역 정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날이어야 한다. 검찰 고발로 얼룩

진 경선, 원칙도 예의도 사라진 공천 과정은 전북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모멸감을 주었다. 이제 도민들은 묻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일꾼은 어디에 있으며, 전북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정당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구일 뿐, 도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이 이번 사태를 키웠고, 그 오만함이 전북 정치를 검찰의 손에 넘겨주는 비극을 낳았다. 이제 전북의 주인인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혼탁한 물을 정화해야 한다. 중앙의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인, 권력을 이용해 경선을 유리하는 세력은 더 이상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6월 3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투표는 전북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야 한다. 도민들은 말이 아닌 실천을, 변명이 아닌 책임을 지는 정치를 원한다. 검찰 고발이라는 부끄러운 얼룩을 지우고, 전북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북 정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정답은 오직 도민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 중앙 정치가 버린 전북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다시 써 내려가자. 그것이 바로 전북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의시

오월 - 소포리에서 / 박재구

그 보리밭에선 작은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산 다랑초논들의 경계를 가만히 흔들고 멀리서 날아온 송화가루가 전설처럼 마을을 덮었다	그 보리밭에선 해질 무렵까지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굽은 등 위로 마을의 불빛들	희미하게 피어나고 소쩍새 울음 피나고 사람들의 자녀밥상을 적실 때에도 산등성이 그 보리밭에선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
--	--	---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씨', '낙타폴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학교 명예교수다.

2011년 10월 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21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정일	인생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6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047	익산시 010-9679-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정읍지국 010-9842-9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전주시 010-9645-0955
익산지국 010-6608-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008
남원지국 010-3015-4781	김제지국 010-4572-8112	정읍지국 010-9628-9048
완주지국 010-5242-3994	정읍지국 010-2800-2504	순창지국 010-5312-7203

더불어 함께 하는 밝은 미래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타임스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사설

악성 민원 방치한 교육행정, 더 이상 교감에게 희생 강요 말라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민원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교감들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 반복되는 악성 민원, 끝없는 책임 전가 속에서 교감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초등학교 교감들 사이에서 정신과 치료 사례와 승진 기피 현상이 잇따르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전북 교육행정의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경고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학부모 권리'라는 이름 아래 묵인돼온 악성 행위가 명백한 괴롭힘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교사와 교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며 교육자라는 상식을 되찾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판결 하나로 현장의 고통이 사라지는 않는다. 지금의 민원 대응 구조는 지나치게 학교와 교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들어닥치면 교감은 사실상

홀로 버텨야 한다. 교육청은 사후 보고만 받을 뿐, 실질적 보호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명백한 직무 방기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차기 전북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다. 악성 민원 대응을 학교 단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로 격상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와 민원 대응 인력을 배치한 통합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감 개인의 인내와 희생에 기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자 자리를 두려워하고, 교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육 현장에 미래는 없다. 방패가 무너지면 아이들의 교육도 무너진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더 이상 원론적 위로와 선언만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북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공감의 말'이 아니라 교원을 지켜낼 실질적 제도다. 교육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은 결국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기고|

꽃 한송이가 바꾸는 일상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과 고마움을 가장 우아하고 진실되게 전하는 매개체는 단연 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7.6%는 최근 1년간 꽃을 구매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62.7%는 꽃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꽃이 주는 위로와 기쁨은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꽃은 여전히 특별한 날에만 허락된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꽃을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는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는다. 탐 화려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에 직접적인 힘이 된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어업조사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국내 화훼 재배면적은 고령화와 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장미와 국화 같은 주요 절화류는 기후 변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다. 생산 기반은 약해지고, 가격은 불안정해지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꽃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꽃은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 작은 위로이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일상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생활 문화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는 화훼산업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피치광광(장미)', '레드캡(스타티스)' 등 고품질 신품종 137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계

나, 에코도르 등 해외 꽃 생산 주산지에서 다양한 품종에 대한 현장실증 재배를 통해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품종들은 해외 종자 로열티 부담을 줄여 농가의 비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여기에 ICT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과 AI 병해충 진단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기후 위기 속에서도 고품질의 꽃을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보다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가 부담 없이 손에 들 수 있는 1만 원대 진입형 상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꽃을 받아보는 구독 모델을 활성화 하여 유통 구조도 한층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과 로컬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셋째,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훼 농가의 디지털 전환과 물류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업계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감성과 생활 방식에 맞는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5월은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번 5월 만큼은 퇴근길에 가족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를 사 들고 가보는 것은 어떨까. 꽃은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화훼 농가에는 희망의 꽃을 피우고, 우리 가정에는 행복의 향기를 채우는 소중한 불씨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과 농업연구관 임주락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더불어 함께 하는 밝은 미래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타임스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正論直筆

거대한 공동(空洞), 텅 빈 공동 위로 예술이 깨어나다



익산 황등석산, 산업의 궤적에서 감각의 성소로

한 세기 동안 돌을 깨고 깎아내던 거친 노동의 포효가 잦아든 자리, 그 깊고 고요한 수직의 공간에 비로소 예술의 숨결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 지표 아래 이 거대한 '지하의 콜로세움'은 이제 산업의 유산을 넘어 감각의 영토로 탈바꿈 중이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시간의 결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 황등석산 문화예술공원. 이 거대한 석조 서사를 지휘하는 김대동 본부장을 만나, 돌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감각과 조우하며 새로운 문화를 빚어내고 있는지 그 내밀한 여정을 들여다보았다.

세 번의 고통, 대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다
황등산업(주) 김종철 대표가 김대동 본부장을 찾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기 동안 살점을 내어준 석산(石山)에 대한 미안함이자, 그 거대한 공동(空洞)을 어떻게든 '살의 자리'로 되돌려놓겠다는 간절한 고백이었다.

"처음엔 김종철 대표가 세 번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동 본부장은 그날의 만남을 '간절한 질문'으로 기억한다. 대개의 복구는 폐쇄된 땅을 흙으로 덮어 상처를 가리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달랐다. 오랜 시간 공들여 형성된 독특한 수직의 미학, 그 거친 석면(石面)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것은 대지가 품은 시간을 통째로 버리는 일이라 믿었다. 그 확고한 의지는 김대동 본부장의 예술적 통찰과 만났다. 석산의 상처를 지워야 할 과제가 아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예술의 창'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산업의 언어에서 문화예술의 언어로 서서히 옮겨갔고, 마침내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잠들어 있던 적막을 깨우는 장기 프로젝트의 첫 씨앗이 뿌려졌다. 그것은 석산의 시간을 다시 읽어내는 위대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복구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물음은 '복구'의 의미였다. 기존의 복구는 원상 회복을 뜻했다. 채굴로 훼손된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제안한 방향은 달랐다. 복구를 원상복구 복원이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 예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과정으로 재정의했다.

Q. 프로젝트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김대동 본부장 - "답은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석산을 재생한다고 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새로 얹는 데서 해법을 찾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이곳에는 한 세기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니다. 돌을 캐낸 흔적, 절개면의 결, 원형으로 파 내려 간 구조 자체가 하나의 서사였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의 흔적이 시간이 지나 자연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그 장면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Q. 해외 사례를 많이 살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대동 본부장 -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 프랑스 프로방스의 '빛의 채석장',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극장 석산, 중국 상하이의 지하석산 호텔, 일본 나오키까지 직접 발로 뛰며 살펴보았습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했어요. 성공한 사례들은 하나 같이 훼손된 공간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공간이 품은 시간을 존중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롭게 읽는 방법을 제안했을 뿐이었죠. 황등석산도 그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백제 석공의 손끝에서 국회의사당, 청와대 영빈관 13m 기둥까지

황등석이 걸은 시간은 길고 묵직하다. 삼국 시대 백제 석공 아사달의 설화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고장 돌을 다루는 기술과 미감은 오랜 세

월 쌓이고 다듬어졌다. 황등석산 인근의 석불사에 모셔진 '연동리석조여래좌상'은 불신의 옷주름과 광배의 구름무늬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처님 역시 황등석산 인근의 돌에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돌 속에 부처를 새기는 행위, 그것이 이 땅 석공들의 오랜 언어였다.

근대에 이르러 황등석은 산업의 언어로 호명됐다. 한 덩이의 화강암이 국회의사당의 기둥이 되고, 대법원과 청와대 영빈관의 13미터 화강암 기둥을 받쳐 올리기까지, 돌은 오로지 규격과 강도와 효율로만 평가됐다. 캐고 옮기고 세우는 과정에서 이곳의 풍경은 기록되기보다 생략되는 쪽에 가까웠다. 돌을 캐던 자리, 먼지가 날리던 절단면, 반복되던 노동의 리듬은 언제나 결과물의 그림자에 머물렀다.

Q.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대동 본부장 - "황등석산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스케일입니다. 지하 80미터 깊이의 압도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크기만큼이나 공간 안에 흐르는 고요함이에요. 원래 채석장은 소리와 진동, 먼지로 기억되는 장소잖아요. 지금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깊은 정적입니다. 그 온도 차이가 황등석산만의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중에 제임스 터렐이 있는데 90m 아래 석산안 적막함과 오히려 따뜻한 고요함속에 있으며, 제임스 터렐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참고로 뮤지엄 안에서 그의 작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1전망대는 자연의 흥터가 다시 자연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장면을 느끼게 됩니다. 사방이 유리로 열린 구조 안에서 방문객은 절벽의 깊이와 결을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설명보다 체감이 먼저 오는 장소. 황등석산은 그렇게 산업의 언어에서 감각의 언어로 천천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김대동 황등석산 본부장

70%가 2030 세대, 지금도 진행 중인 진화형 공원

개장 이후 방문객의 70%가 20~30대 젊은 세대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26년에는 연간 4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될 만큼, 근대 산업유산을 재생한 공간 중에서도 그 반응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뜨겁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열광은 황등석산만이 가진 '인간의 흔적과 대자연의 이중적 협업(Collaboration)'이 만들어낸 독보적인 미학 덕분이다.

거칠게 잘려 나간 수직의 절벽과 그 사이로 스며든 빛과 바람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각적 인스타그램(Instagrammable)'의 성지가 되었다.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고 날 것 그대로의 스케일을 드러낸 공간 구성은, 설명보다 체험을 중시하고 비일상적인 오브제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발견하려는 MZ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관통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대동 본부장 - "2033년 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을 만듭니다. 휴지는 석산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유리 잔도, 번지점프대 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광지는 국내외 중

국에 충분히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제1전망대의 세 배 규모에 달하는 제2전망대가 조성 중입니다.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미디어아트와 소규모 공연, 전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에는 황등석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채석 장비 등 근대문화유산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33년까지 석산 전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황등석산을 찾는 여정은 자연스럽게 황등시장으로 이어진다. 한때 3천 명에 달했던 석공들이 모여들며 탄생한 '황등비빔밥'은 돌과 노동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은 음식이다.

빨리 먹기 위해 고기 육수에 토포한 밥에 여러 반찬을 한데 비벼 먹던 석공들의 식사 방식은 지금도 황등시장에서 3대를 이은 지역의 별미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돌을 캐던 자리, 그 돌로 세워진 건물, 그리고 돌과 함께 축적된 삶의 방식. 황등석산은 그 모든 시간을 품은 채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오게 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대동 본부장 - "파괴된 간 깊이만큼, 공간에는 비로소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었다. 떠났던 나비와 벌들이 돌아오고, 소리와 먼지가 사라진 자리에 꽃이 올라오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채워지고 있어요. 황등석산은 더 이상 무언가를 꺼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돌이 놓였던 자리를 굳이 찾아 내려옵니다.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마주한, 대지의 진심

돌은 침묵하지만, 그 자리가 품은 시간은 관광객에게 수많은 말을 건넨다. 거칠게 깎여 나간 절벽의 끝마다 백제 석공의 숨결과 근대 산업의 땀방울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제 황등석산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꺼내 쓰던 '채취의 시대'를 지나, 문화와 예술로 마음을 채우는 '향유의 시대'로 진입했다. 진정한 복구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시간의 꽃을 피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상훈 기자